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이 낙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Sex Role Stereotypes on Juvenile Delinquency Mediated by Stigma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양은별(Yang, Eun Byeon)¹⁾

진미선(Jin, Mi Seon)²⁾

오수경(Oh, Su Kyung)³⁾

박시하(Park, Si Ha)⁴⁾

정익중(Chung, Ick Joong)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stereotypes and delinquency, and determine if it is mediated by stigma. The data was taken from the fourth wave of the 2010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which was administer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ex role stereotypes were found to increase stigma and delinquency.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stereotypes and delinquency is mediated by stigma. Thir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mediating models. As for the female participants, stigma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²⁾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³⁾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⁴⁾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⁵⁾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Chung, Ick Jo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Republic of Korea
E-mail : ichung@ewha.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stereotyping and delinquency. In contrast, for the male participants, the mediating effect of stigma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s need improvement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 and sex role stereotypes.

Keywords : 성역할고정관념(sex role stereotype), 낙인(stigma), 비행(delinquency), 성별차이(gender difference).

I. 서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종이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 중 성별은 상호배타적인 특성으로 인해(Grace & David, 2008), 아동기부터 인식하게 되는 범주이자 사회적 구조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루어지는 범주 중 하나이다(Cho, 2001; Cho & Bang, 2003).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은 성역할정체감을 습득한다. 성역할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별에 따른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의 성에 대해 가지게 되는 가치관, 태도, 행동 및 특성 등을 내면화시킨 정도로 정의된다. 성역할정체감은 청소년이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개인의 사고체계와 진로 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Ji, 2004).

이처럼 성역할정체감은 청소년의 발달과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남성은 남성의 역할만을, 여성은 여성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Yoo, 1994).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성역할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Eggen & Kauchak, 2010; Klein, 1985). 지금까지는 성역할정체감과 성역할고정관념이 모두 성역할과 관련되어 두 개념을 중복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성역할고정관념은 생물학적인 성으로만

개인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으로서(Kim, 2006),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과 기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Eggen & Kauchak, 2010; Klein, 1985), 일반적으로 자기주장과 지배적 성향 등이 높고 성취 지향적인 특성은 남성의 역할로, 비독립적이며 순응적인 특성은 여성의 역할로 정의된다(Lee, 2012; Worell & Remer, 2003).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학습되면서 점차 개인의 특징인 것처럼 인식되는데(Cho, 2001; Crespi, 2007), 성역할고정관념은 개개인의 특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변화하는 사회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Lim & Sea, 2007). 또한 성역할고정관념은 개인을 성별이라는 특정 범주에 예측하고, 성에 따라 개인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그 역할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범주에서 이탈된 개인으로 간주되어 낙인이 가해질 수 있다(Cho & Bang, 2003; Jung, 2001).

낙인이론에서는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을 낙인이라고 하였는데(Corrigan, Watson, & Barr, 2006), 낙인은 남성이나 여성의 역할과 같은 특정 사회적 범주를 따르지 않거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Lee, 2011). 이는 범주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과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수반할 수 있다(Lee, 2011). 특히 청소년은

성별에 맞는 역할을 내면화하여 성별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역할에서 벗어난 경우에 스스로 자신에게 낙인을 가하기도 한다(Yoo, 1994). 이처럼 청소년은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낙인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Kim, 2001; Yoo, 1994).

낙인은 청소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관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청소년이 비행을 시작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하여 범죄문화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rnburg, Krohn, & Rivera, 2006; Malcolm, 1976). 특히 부모, 교사 및 또래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비공식낙인이 청소년비행의 주요원인이라고 하였는데(Adams, Robertson, Gray-Ray, & Ray, 2003), 그 중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낙인은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시키고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im, Kim, & Yoo, 2010; Lee, 2007). 이처럼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 시기에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낙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Lee & Son, 2007). 이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Jin, Park, & Bae, 2011; Lee & Son, 2007).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과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성역할고정관념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족 내에 존재하는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Chung, 2005; Endendijk et al., 2013),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Choi, 2008; Kim & Han, 2013; Lee, 2007). 하지만 성역할고정관념과 낙인, 비행을 모두 연결시킨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성역할고정관념이 낙인을 통해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인지, 성역할고정관념 자체가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성역할고정관념이 비행을 유발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는 측면과(Chung, 2005; Kim, 2008), 성역할고정관념이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닌 청소년에게 낙인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 낙인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Ko, Kim, & Kim, 2009; Kwak & Kim, 2013)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성역할고정관념이 낙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역할고정관념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남자청소년에게는 비행을 유발시키고, 여자청소년에게는 유발시키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여자청소년에게는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영역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낙인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Chung, 2005; Jin et al., 2011; Kim, 2008). 더불어 우리 사회는 성별에 따라 각기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남자청소년의 일탈행위에는 ‘남성다움’으로 일부 수용적인 반면, 여자청소년의 비행에는 상대적으로 덜 허용적이기 때문에 여자청소년이 여성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남자청소년보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비난이 가해지는 경향이 있다(Chung, 2005; Heimer & Kruttschnitt, 2006). 이로 인해 성역할고정관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다(Woo, 2002). 또한 일상생활에서 남성은 긍정적인 정보에, 여성은 부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Maheswaran & Meyers-Levy, 1990; Pavlova, Wecker, Krombholz, & Sokolov, 2010), 이러한 과정에서 낙인의 내재화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많은 낙인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Choi, 2008).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이 낙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조명하고 자아개념이 완성되어가는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비행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성역할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원조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낙인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이 낙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Korea Youth Panel)의 고등학교 2학년인 4차년도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성역할고정관념이 청소년기 후반인 고등학교 시기에 완성되어 가기 때문이다(Katz & Walsh, 1991). 분석대상은 3,449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총 3,073명으로 하였으며, 남자는 1,542명(50.2%), 여자는 1,531명(49.8%)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1) 독립변수 : 성역할고정관념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성역할고정관념 변수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포함하였다. 먼저 여성고정관념은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보기 좋다”,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남성고정관념은 “남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남자는 어느 정도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남자답다”와 같은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3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총 6문항들의 평균점수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고정관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754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 비행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청소년 비행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 따돌림 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 총 13가지 비행을 나열하고 여기에 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비행

유형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0(없다), 있는 경우 1(있다)로 변환하고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청소년비행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무응답된 문항은 측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634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 낙인

낙인은 자기낙인과 타인낙인 각각 2문항씩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나의 낙인으로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자기낙인에 관한 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이며, 타인낙인에 관한 문항은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로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낙인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2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부모학력, 부모감독, 자아통제, 공격성, 학교적응,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및 성별 변수로 구성하였다. 부모학력은 학교급 수준으로 무학 = 1, 초등학교 = 2, 중학교 = 3, 고등학교 = 4, 전문대 = 5, 대학교 = 6, 대학원 석사 = 7, 대학원 박사 = 8로 측정하였다. 부모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0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는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등의 총 6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문항 모두를 역코딩

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681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등의 6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0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학교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학교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렵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문항 모두를 역코딩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애착은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등의 6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1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등의 총 4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59로 나타났다. 교사애착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2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성별은 남자(0), 여자(1)로 코딩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variables

Variable	Total M(SD)	Male M(SD)	Female M(SD)	Skewness	Kurtosis	t
Sex role stereotype	2.89 (.66)	3.07 (.65)	2.71 (.62)	-.24	.76	15.78***
Stigma	1.81 (.76)	1.89 (.79)	1.73 (.72)	.97	1.11	5.71***
Delinquency	.80 (1.19)	.94 (1.30)	.67 (1.05)	2.44	9.16	6.37***

*** $p < .001$.

성역할고정관념은 평균 2.89로 나타났으며 남자청소년은 3.07, 여자청소년은 2.71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매개변수인 낙인을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1.81이었고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낙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비행의 전체평균은 .80으로 나타났고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비행 변수가 왜도, 첨도가 높기는 하지만 모든 변수들이 왜도는 3이하, 첨도는 10이하로 나타나 정규성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비행의 예측요인

비행의 예측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학력, 부모감독, 자아통제, 공격성, 학교적응,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및 성별을 통제변수로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VIF값은 2.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성역할고정관념과 낙인은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공격성과 또래애착이 비행을 증가시키고, 자아통제, 학교적응, 교사애착 및 성별은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애착과 공격성이 높고 자아통제, 학교적응 및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비행을 많이 하고, 남자청소년이 비행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역할고정관념과 낙인은 모두 남자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이 여자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공격성이 높을수록, 여자청소년은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비행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성역할고정관념과 비행의 관계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성역할고정관념과 비행의 관계에서 낙인의

〈Table 2〉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Variable		<i>b</i>	β	<i>t</i>
Independent variable	Sex role stereotype	.110	.066	3.853***
	Stigma	.163	.111	5.976***
Control variable	Parental academic background	-.005	-.005	-.295
	Parental monitoring	-.036	-.026	-1.327
	Self-control capacity	-.221	-.131	-6.904***
	Aggression	.107	.067	3.610***
	School adjustment	-.381	-.258	-13.647***
	Parent attachment	-.007	-.005	-.231
	Peer attachment	.261	.147	8.927***
	Teacher attachment	-.044	-.035	-2.100*
	Gender(girls)	-.165	-.075	-4.378***
Constant		1.477		5.816
Adj R^2			.234	
<i>F</i>			81.638***	

* $p < .05$. *** $p < .001$.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2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때 1, 2단계에서 독립변수, 매개변수의 영향이 유의하고, 3단계에서도 매개변수가 여전히 유의하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은 낙인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4.1%로 나

타났다. 2단계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은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2.2%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낙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성역할고정관념과 낙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성역할고정관념과 매개변수인 낙인 모두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며 성역할고정관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낙인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성역할고정관념과 낙인이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비율은 23.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낙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와 3단계를 살펴보았다. Table 3을 보면 2단계의 독립변수 β 값이 .070이었으나, 낙인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Table 3〉 The effect of sex role stereotype on juvenile delinquency mediated by stigma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B</i>	β	<i>t</i>	<i>R</i> ² (adj. <i>R</i> ²)	<i>F</i>
Step 1	Sex role stereotype	→	Stigma	.041	.037	2.195*	.244(.241)	94.828***
Step 2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117	.070	4.074***	.225(.222)	85.225***
Step 3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110	.066	3.853***	.234(.231)	81.638***
	Stigma			.163	.111	5.976***		

* $p < .05$. *** $p < .001$.

Note. This result includes all the control variables in the Table 2.

의 β 값이 .066으로 그 값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성역할고정관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obel test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이 낙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z = 2.770$ 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낙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역할고정관념과 비행의 관계에서 낙인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

성역할고정관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낙인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남자청소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1단계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은 낙인을 감소시키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2.5%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은 비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설명력은 21.1%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성역할고

정관념과 매개변수인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성역할고정관념과 낙인은 모두 비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설명력은 22.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낙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2단계의 독립변수 β 값이 .071이었고 낙인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β 값이 .073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Sobel test 결과,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z = -.907$ 로 유의미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자청소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은 낙인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25.3%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은 비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설명력은 21.3%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과 낙인 모두 청소년의 비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 설명력은 22.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낙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단계와 3단계를 살펴보았다. Table 4를 보면 2단계의 독립변수 β 값이 .069였으나, 낙인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β 값이

〈Table 4〉 The effect of sex role stereotype on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stigma by gender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t	R ² (adj. R ²)	F
Male	Step 1 Sex role stereotype	→ Stigma	-.026	-.021	-.902	.229(.225)	48.552***
	Step 2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133	.071	2.994**	.216(.211)	45.041***
	Step 3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138	.073	3.112**	.226(.221)	42.890***
	Stigma		.176	.113	4.320***		
Female	Step 1 Sex role stereotype	→ Stigma	.113	.099	4.319***	.257(.253)	56.259***
	Step 2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106	.069	2.921**	.218(.213)	45.248***
	Step 3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090	.058	2.468*	.226(.221)	42.741***
	Stigma		.144	.107	4.000***		

* $p < .05$. ** $p < .01$. *** $p < .001$.

Note. This result includes all the control variables in the Table 2.

.058로 그 값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성역할고정관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bel test 결과,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z = 3.049$ 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낙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역할고정관념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낙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성역할고정관념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 비행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고정관념과 낙인 모두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고정관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 행동을 많이 하고, 또한 낙인도 비행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 성역할고정관념이 비행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낙인이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Jin, Park, & Bae, 2011; Park & Kim, 2012).

둘째, 성역할고정관념과 비행의 관계에서 낙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고정관념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낙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낙인이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alcolm, 1976)에서 밝혀진 결과와 같이 낙인이 비행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성역할고정관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에서 낙인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낙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자청소년에게는 낙인의 매개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고정관념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Chung, 2005; Jin, Park, & Bae, 2011; Kim, 2008). 우리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적용하는 기준으로 인해 여자청소년은 여성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남자청소년보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비난이 가해지는 경향이 있다(Chung, 2005; Heimer & Hruttschnitt, 2006). 이로 인해 성역할고정관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다(Woo, 2002). 또한 남성은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덜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낙인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민감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낙인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Brizendine, 2007; Maheswaran & Meyers-Levy, 199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과 낙인이 높을수록 비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관념은 성역할정체감을 확립해나가는 청소년기에 필요하지만 그러한 성관념이 고정관념으로 변모한다면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성역할고정관념과 낙인은 비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성교육은 단순히 남녀성관계의 위험이나 예방과 같은 ‘sex’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gender’ 차원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성교육 시 남녀 차이에 대한 생물학적 및 사회문화적 성 내용을 함께 다루어 성별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역할고정관념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낙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역할고정관념이 청소년에게 낙인을 가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차와 더불어 개인차를 포괄할 수 있는 양성적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Bem, 1974), 부모가 먼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적절히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아동기와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부모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남자청소년에게는 낙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자청소년에게는 매개효과가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성역할고정관념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낙인을 매개로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자청소년에게는 공격성과 같은 남성의 특성이 비행으로 연결되지 않고, 책임감과 같은 긍정적인 남성의 성역할들을 습득하여 건강한 남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낙인의 매개효과가 크게 나타난 여자청소년에게는, 낙인이 비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비행 전 개입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방임되거나, 혹은 청소년 성매매 등의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여자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비행을 행한 여자청소년에게는 무조건적인 통제나 낙인을 가하기보다는 적절한 상담과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측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심리·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심각한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현행 봉사활동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청소년 비행 및 범죄 행동에 대한 교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교정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올바른 성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봉사활동 제도가 실질적인 비행 교정 뿐 아니라 아이들의 추후 비행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성역할고정관념이 낙인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성역할고정관념이 남녀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역할고정관념이 청소년들에게 종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통해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낙인이 비행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지만, 현재 패널 조사에서는 비행에 한정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낙인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dams, M. S., Robertson, C. T., Gray-Ray, P., & Ray, M. C. (2003). Labeling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8(1), 171-18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55-162.
- Bernburg, J. G., Krohn, M. D., & Rivera, C. J. (2006). Official labeling, criminal embeddedness, and subsequent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of labeling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3, 67-88.
- Brizendine, L. (2007). *The female brain*. New York: Broadway Books.
- Cho, H. J. (2001). Gender stereotype: Why not disappear?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6(3), 107-125.
- Cho, H. J., & Bang, H. J. (2003). Effects of gender-stereotype on explicit and implicit self construal of Korean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8(3), 101-122.
- Choi, S. H. (2008). A gender difference in the relation of persistent delinquency and informal labeling.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19(2), 145-165.
- Chung, I. J. (2005). Sex role stereotypes and sex differences in juvenile delinquency. *Studies on Korean Youth*, 16(1), 35-76.

- Corrigan, P. W., Watson, A. C., & Barr, L. (2006). The self-stigma of mental illness: Implications fo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8), 875-884.
- Crespi, I. (2007). *Socialization and gender roles within the family: A study o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 Great Britain*. Rome: Catholic University of Milan.
- Eggen, P. D., & Kauchak, D. P. (2010). *Educational psychology: Windows on classrooms*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Prentice Hall.
- Endendijk, J. J., Groeneveld, M. G., van Berkel, S. R., Hallers-Haalboom, E. T., Mesman, J., & Bakermans-Kranenburg, M. J. (2013). Gender stereotypes in the family context: Mothers, fathers, and siblings. *Sex Roles, 68*(9-10), 577-590.
- Grace, D. M., & David, B. J. (2008). Investigating preschoolers' categorical thinking about gender through imitation, attention, and use of self-categories. *Child Development, 79*(6), 1928-1941.
- Heimer, K., & Kruttschnitt, C. (2006). *Gender and crime: Patterns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Ji, Y. G. (2004). The effects of sex role identity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career interes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6*(1), 71-88.
- Jin, H. M., Park, B. S., & Bae, S. W. (2011). The impact of informal labeli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juvenile delinquency: Focusing on path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2), 121-148.
- Jung, K. A. (2001). A study of gender stereotype as psychological mechanism of discrimination: Concerning the case of discriminative discharge of Nonghyup.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6*(3), 69-85.
- Katz, P. A., & Walsh, P. V. (1991). Modification of children's gender-stereotype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2*, 338-351.
- Kim, H. R.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x-role inventory for Korean adolescents. *Social Research, 12*, 135-152.
- Kim, H. S. (2001). The effect of beliefs and affect regarding group categories on prejudiced judgment: Across cultural comparison between fender and racial prejudice in America and gender and the regional prejudice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1), 1-16.
- Kim, H. S., Kim, S. C., & Yoo, S. K. (2010). Casual model of labeling, parental attach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With a focus on examination of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4), 185-206.
- Kim, K. S., & Han, S. B. (2013). Relationship among leisure dissatisfaction, emotional state, self stigma and delinquency of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7*(2), 73-87.
- Kim, S. J. (2008).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of gender-role stereotype among you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6*, 129-149.
- Klein, S. S. (1985). *Handbook for achieving sex equity through education*. Baltimore: Johns

- Hopkins University Press.
- Ko, J. S., Kim, H. O., & Kim, K. H. (2009). The study on self-stigma and social support system affecting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2), 173-194.
- Kwak, S. E., & Kim, C. K. (2013). The impact of attachment, informal labeling, and aggression on juvenile delinquency-focusing on path analysi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1), 77-95.
- Lee, H. J. (2012). The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 on self-determination: The longitudinal study on gender differenc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2), 391-412.
- Lee, J. S. (2011). The effect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self stigma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27(1), 277-299.
- Lee, M. J., & Son, E. J. (2007). Perceived stigma and the intention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Mediating roles of the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4), 949-966.
- Lee, S. S. (2007). The effect of informal labeling on delinquency: Analysis of youth panel data.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18(3), 1105-1127.
- Lim, U. H., & Sea, H. S. (2007). Gender role identity and juvenile delinquency: An empirical test of social control theor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3), 53-78.
- Maheswaran, D., & Meyers-Levy, J. (1990). The influence of message framing and issue involve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7(3), 361-367.
- Malcolm, S. (1976). Labeling theory in social problems: A young journal launches a new theory. *Social Problems*, 24(1), 69-75.
- Park, J. H., & Kim, H. J. (2012). Factors affecting on juvenile recidivism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3), 75-96.
- Pavlova, M. A., Wecker, M., Krombholz, K., & Sokolov, A. A. (2010). Perception of intentions and actions: Gender stereotype susceptibility. *Brain Research*, 1311, 81-85.
- Woo, E. B. (2002). Sex role stereotype on delinquency and iss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society. *Korean Educational Review*, 8(1), 88-106.
- Worell, J., & Remer, P. (2003).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Empowering diverse women* (2nd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Yoo, K. H. (1994). Sex-role development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Relationships among sex-role stereotypes, sex-role ideology, sex-role identity,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5(1), 127-144.

Received July 31, 2014

Revision received October 18, 2014

Accepted October 22, 2014